

# 리우는 잊어라! 안바울·조구함 어깨 무겁다

안바울, AG 금빛 업어치기 기대  
조구함도 그랑프리 우승 상승세  
금 2개 목표...타도 일본 구슬땀



2018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한국남자유도대표팀은 '어벤져스'로 불렸다. 60kg급 김원진(양주시청)과 66kg급 안바울, 73kg급 안창림(이상 남양주시청), 90kg급 곽동한(하이원) 등 톱층커 네 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승세도 엄청나 내심 '메달밭'이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안바울의 은메달과 곽동한의 동메달이 전부였다. 유도 중주국인 일본에 대비한 훈련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힘을 앞세운 유럽과 남미 선수들에게 달미를 잡혔다. 7개의 체급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일본 남자 선수들도 유럽과 남미의 강세에 밀렸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타도 일본'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을 앞둔 남자유도대표팀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백의종군'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AG 엔트리에 선발된 7명의 선수 가운데 60kg급 이하림(용인대)을 제외한 전원이 리우올림픽 멤버라는 점이다. 안바울과 안창림, 곽동한을 비롯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자유도대표팀 멤버 7명 가운데 6명이 2016리우올림픽을 경험했다. 이들은 올림픽 당시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은메달과 동메달 한 개씩을 따내는 데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로 인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해 81kg급 이승수(한국마사회), 100kg급 조구함(수원시청), 100kg 이상급 김성민(한국마사회)이 그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대회에서 2년 전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로 현재 인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안바울·조구함, 감독이 꼽은 금메달 유력후보

남자유도대표팀 금호연 감독은 25일 "안바울과 조구함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안바울은 업어치기의 달인으로 통한다. 리우올림픽에서 치른 5경기 중 3승을 이끈 기술도 업어치기였다.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강점이다. 리우올림픽 4강전에서 세계 최강자로 손꼽히던 에비누마 마사시(일본)도 안바울의 버티기에 진이 빠졌을 정도다. 안바울은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 AG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조구함은 리우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지만, 수술도 미룬 채 출전을 강행하

는 후환을 보였다. 비록 그의 올림픽 여정은 16강에서 끝났지만, 큰 무대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수확도 얻었다. 지금은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고, 지난 5월 중국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2018 국제유도연맹(IJF) 그랑프리대회 금메달로 기세를 한껏 올렸다.

### ●이번에야말로 '타도 일본'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이다. 특히 리우올림픽에서 일본에 금메달을 안긴 남자 73kg급 오노 쇼헤이와 90kg급 마슈 베이커가 난적으로 통한다. 오노는 일본 특유의 기술과 디테일에 파워까지 지닌 당대 최고의 선수로 통한다. 안창림과 곽동한은 이들을 넘어서야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안바울은 후허하오터그랑프리 66kg급 우승자 마루야마 조시로, 조구함은 2017파리그랜드슬램 우승자 이이다 겐타로를 상대한다. 최장랑급의 김성민도 인천AG 우승자인 오지타니 다케시를 넘어야 금메달이 보인다. 금호연 감독은 "이전에는 세대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세대교체) 모두 끝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금메달 2개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들의 집중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이미향



박성현



전인지

(LPGA 스코티시 오픈)

## 브리티시 오픈 전초전 몸푸는 필드의 여왕들

일주일 먼저 맞는 비와 바람이 메이저 왕관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을까.

올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를 앞둔 필드 위의 여왕들이 2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에 집결한다. 이스트 로디언 걸레인 골프클럽(파71·648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150만달러·약 17억원)이 그 무대다.

지난해 초대 대회에서 이미향(25·보빅)을 우승자로 배출했던 스코티시 오픈은 바로 다음 주 열린 브리티시 오픈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영국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미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걸레인 골프클럽과 브리티시 오픈의 대회장인 잉글랜드 로열리담&세인트앤스 골프링크스는 각각 영국 동쪽과 서쪽의 바닷가에 위치해있다. 지역 특유의 약천후는 물론 거센 바닷바람이 공통적으로 불어 닥친다.

이에 메이저 왕관을 노리는 선수들은 브리티시 오픈에 앞서 경기감각을 가다듬겠다는 각오다. 디펜딩 챔피언인 이미향을 비롯해 박성현(25·KEB하나은행)과 전인지(24·KB금융그룹), 김세영(25·미래에셋), 고진영(23·하이진로) 등이 출사표를 올렸다. 태극낭자들의 올 시즌 8승 합작을 막으려는 경쟁국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나란히 US오픈과 ANA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했던 '메이저 퀸' 아리아 주타누간(23·태국)과 페르닐라 린드베리(32·스웨덴)가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왕관에 도전장을 내민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 파이터로 돌아온 정문홍

지난해 11월 로드FC 대표직에서 물러난 정문홍(44) 전 대표가 현역 파이터에게 필요한 개인 프로필 사진을 위해 화보 촬영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로드FC를 글로벌 종합 격투기 단체로 발돋움하게 한 주인공이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해외 대회를 개최, 한국 메이저 스포츠 최초 해외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로드FC가 개최한 해외대회는 모두 전설 매진 기록을 세웠고, 14억 중국인이 시청하는 국영 방송국 CCTV에 생중계 돼 스포츠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의 이번 화보 촬영은 현역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생각한 현역 선수로의 복귀를 점 점 현실화시켜 나가는 모습이다.

**화보 촬영...현역 복귀 신호탄**  
로드FC 048 세션 참여 계획도 벌써부터 상대 선수 물색 나서

이 밖에도 정 전 대표는 오는 28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XIAOMI 로드FC 048에 출전할 '로드짐 원주 MMA' 소속 제자들을 위해 직접 세션으로 들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신중국(37·로드짐 원주 MMA)을 비롯해 유재남(32·로드짐 원주 MMA), 곽종현(25·로드짐 원주 MMA), 박재성(24·로드짐 원주 MMA), 이한용(18·로드짐 원주 MMA) 등 관원 5명이 대회에 출전한다.

로드FC 김대환 대표는 25일 "정문홍 전 대표님이 파이터로 곧 돌아온다.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러 방면으로 상대 선수를 물색하고 있다. 조만간 상대를 확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소식을 전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정문홍 로드FC 전 대표가 선수 프로필로 사용할 사진을 위해 화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로드FC

##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농구 등 꿈나무 160명 참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25일

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중국 하남성 낙양시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우호 증진 및 스포츠 상호발전 도모를 위해 중학생 선수 160명(한국 80명·중국 80명)이 참가했다. 농구, 탁구, 배드민턴 3개 종목의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은 대전광역시 한밭체육관, 대전 중·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도솔체육관 등에서 합동훈련과 공식경기 등의 스포츠 교류전을 갖는다. 올림픽, 중앙과학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명동투어 등 문화·역사 탐방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지난 2008년에 시작돼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는 양국의 스포츠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다. 11월에는 중국 하남성 낙양시에서 제11회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 파견 사업이 실시된다. 대한체육회는 대전광역시 선수단을 주축으로 한국선수단 8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도종환 장관 야구장 간담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이 25일 프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전이 열린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의견을 들었다. 도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생산성도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스포츠 등 체육 분야가 국민의 여가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 뉴스